

고흥 ‘섬 드론 배송 시대’ 열었다

녹동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시연회…11월까지 상화도 등 4곳 12개 지점 운영

고흥군이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군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으며, 약 7개월 동안 항로 개설, 인프라 구축, 배달 웹 개발 등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5일 도양읍 녹동산항에 구축한 드론배송센터에서 공영민 고흥군수, 박선준 전남도의원, 고흥군의회 의원, 드론업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가 진행됐으며, 2025년 첫 드론 배송 주문과 배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마을회관에 모인 상화도 주민 20여명은 드론 배송 시연을 통해 받은 시원한 물회를 맛보며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었고, “앞으로 드론 배송을 통해 평소 섬에서 먹기 힘들었던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는 오는 11월까지 상·하화도, 득량도, 거금해양낚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총 4곳의 드론 배송 거점과 총 12개의 배달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고흥군이 직접 개발한 드론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음식, 생필품, 식음료 등을 주문할 수 있으며, 긴급 의약품도 배송할 계획이다. 섬 주민들은 서비스 개시 후 약 한 달간 무료로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고흥군이 지난 5일 도양읍 녹동산항에 구축한 드론배송센터에서 드론배송 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섬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고흥군 제공>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은 드론과 우주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이번 시연회를 통해 드론 배송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과 동시에 앞으로 섬과 해역을 아우르는 물류 혁신 모델을 선도하고, 드론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서울 강북구 청소년 교류 캠프 성료

40여명 참여…요리·천체 관측 등 다채로운 활동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과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가 공동 주최한 ‘자매결연지역 청소년 교류 캠프’가 지난달 31일 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

이번 캠프는 자매결연 도시인 보성군과 서울 강북구 청소년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양 지역 청소년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보성 특산품을 활용한 요리체험 ▲레크리에이션 ▲녹차밭 미션 활동 ▲천체관측 ▲다례 체험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특별 미션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캠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지역은 달라도 또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활동이 즐거웠다”고 전했다.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전태진 관장은 “지역 간 거리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청소년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오는 8월과 9월, 전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회 e스포츠 대회(리그 오브 레전드×발로란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순천시, 정원 치유 산업도시 ‘첫걸음’

우주텍과 협약…걷기 문화 활성화 등 협력키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5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우주텍(대표 허민수)과 생태 치유 산업도시로의 브랜드 선점과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청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자연의 반창고 역할을 하는 순천만국가정원과 걷기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편한 신발 브랜드 르무통을 운영 중인 ㈜우주텍의 상호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상호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공동 협업 ▲정원 내 시설 이용 및 걷기 행사시 상호 지원 ▲브랜드 콘텐츠 등에 순천만국가정원 적극 활용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30만 평의 대자연속 순천만국가정원

은 걷기를 통한 마음충전, 면역력 증가 등 사회적 처방 역할과 힐링 소비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우주텍 르무통은 걷기 편한 신발로 자연 속에서 ‘걷는 즐거움’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원 치유 산업 도시로 가는 첫걸음으로, 정원의 치유 역할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맞물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생태·치유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원 치유 교육, 다양한 콘텐츠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심



리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와 감성의 정원’으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의 별헤는 밤! 전어 축제 속으로

내달 12~14일 망덕포구 일원

해상 전어 잡기·백일장·가요제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

광양전어축제가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별헤는 밤!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향연’을 주제로 진행될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맨손 전어잡기 체험,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 전국 초등학교 대상 백일장·사생대회가 있다. 이 외에도 배달도 섬정원과 별헤는 다리의 야간 경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첫째 날인 9월 12일에는 혼성 3인조 포크그룹 ‘판도라’의 공연과 전·여가요제 예선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대상 백일장·사생대회,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전어잡기 체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어잡이 소리’ 시연, 해상 전어잡이배 시연, 초대 가수 손빈아·목비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백일장·사생대회 시상식, 전어잡기 체험, 주민자치 맨스대회, 전어가 요제 본선이 열리며, 인기가수 김양·박성현의 축

하공연으로 축제가 폐막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해상에서 직접 전어를 잡는 ‘해상 전어잡이 시연’이 진행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장병욱 가옥 앞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하루 3회씩 ‘하늘과 바람과 별과詩’가 있는 음악 버스킹이 열려 라이브 연주와 시 낭독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전어 한 접시를 맛볼 수 있는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 맛볼 거리 모두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인 망덕포구는 광양 진월 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국도 2호선을 이용하면 접근이 용이하다. 축제 기간 동안 망덕 먹거리타운 거리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전어조형물이 있는 행사장 입구 인근의 임시 주차장과 진월초등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기춘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무더위 대비 그늘막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광양의 대표 축제로서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고소한 전어를 함께 즐기는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어선 소유자 구명조끼 신청하세요

여수시, 9월까지…자부담 20%

여수시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30일까지 지원 신청

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착용이 간편하고 활동성이 뛰어난 팽창식 구명조끼(목걸이형·벨트형)의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 인식 개선과 착용률 제고가 기대된다. 지원은 구매비용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보조하고, 신청자가 20%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허가어선, 어장관리선, 낚시어선, 어획물 운반선 등을 보유한 어선 소유자이다. 단, 수산업 관련 시험·조사·지도·단속·교육용 선박이나 수산물 가공 종사 어선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여수시 수산경영과, 여수수협(지도과, 순천·죽림·군내지점), 거문도수협, 여수어선안전조업국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여수=김청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